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분석

김현례¹ · 김선아²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¹, 교수²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Risk-tak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Hyun Lye¹ · Kim, Sunah²

¹Research Professor, ²Professo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risk-tak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44 students from 4 middle schools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From July 16, to September 9, 2008,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emographic,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risk-taking behavior were examin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s count model using SAS 9.1 and Stata 10.0 program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score for risk-taking behavio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tended to be low with thrill-seeking behavior being the highest. Risk-taking behavior was higher for boys and for students not living with parents. Stress coping ability, family risk factors, family functioning, peer's risk-taking behavior, and harmful environment were correlated with risk-taking behavior. On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ing risk-taking behavior were self-esteem and for increased risk-taking behavior, family functioning, and peer's risk-taking behavior. **Conclusion:** A risk-taking behavior approach that considers developmental needs is useful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early adolescents. Development of effective guidance and interventions considering factors influencing risk-taking behavior a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recommended.

Key Words: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 Middle school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발달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장 과업에 직면하고, 부모-자녀관계, 학업, 또래 및 인지·정서적 차원에서 전환기로서 위험행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다(Yoon & Nam, 2007). 청소년 위험행동은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여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에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줄이기 위해 많은 임상가 및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와 범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시작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National Youth Commission, 2007).

위험행동은 일반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직접적 또

주요어: 중학생, 청소년, 위험행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yun Ly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2, Fax: 82-2-392-5440, E-mail: hlkim3272@yuhs.ac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Yonsei University.

투고일 2011년 2월 11일 / 수정일 1차: 2011년 3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9일

는 간접적으로 건강과 안전성을 해치는 동시에 다른 위험까지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Kim, 2008) 기존연구에서 학교생활부적응, 음주, 흡연, 폭력행동, 성행동, 가출, 자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험행동의 개념은 Moore와 Gullone (1996)이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상실)를 내포하지만, 지각된 긍정적인 결과(이득)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Gullone, Moore, Moss와 Boyd (2000)는 모험추구(스릴추구형) 행동, 반항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무모한(부주의한) 행동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모험추구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위험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낙하산 타기 등과 같은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이 해당된다. 반항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은 대체로 유사한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성질의 행동이라기보다 사회적 또는 법적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무모한 행동은 가장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는 범주로 과속, 자동차 몰래 타기, 보호되지 않은 섹스 등을 포함한다(Han, Kim, Sul, Im, & Jo, 2003). 국내 연구에서는 Park과 Jo (2010)가 잠재적 문제행동(음주, 흡연, 약물사용, 성행동, 폭력), 자살행동, 가출, 인터넷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 위험행동은 심리학, 교육학, 가족학, 사회복지학, 의학, 간호학 등에서 문제행동, 비행, 부적응, 이탈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외로 문제행동과 별 차이 없이 사용되거나 포함하는 행동목록이나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Perkins & Jones, 2004). 위험행동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적응적 행동이며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지며, 위험행동의 범주에는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Gullone et al., 2000; Han, 2006; Han et al., 2003; Jessor, 1991).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조치나 지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은 복합적인 내·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고, 속해 있는 시대 및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Irwin & Millstein, 1986). 즉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연령과 시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위험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원인과 사회환경적 배경과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 위험

행동의 복합적인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외로 시도되었는데, 포괄적인 문헌고찰에 의해 크게 일반적 특성, 개인내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는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편부모 가정, 학업성취도 등이 있다. 고학년일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위험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Soh et al., 2001)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다양한 위험행동에 더 빈번하게 개입하였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Yoon & Nam, 2007).

두 번째로, 개인내적 특성으로 발달특성에 따른 인지적 미성숙이나 정서적 불균형,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이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외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등의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대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위험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고(Irwin & Millstein, 1986; Jessor, 1991) 위험행동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관련성(Han, 2006; Lee & Bell, 2004)이 규명된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과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보호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Sherina et al., 2008; Veselska et al., 2009). 스트레스 대처능력 또한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서(Yoon & Nam, 2007)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위험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Yoon, Park, & Ryu, 2005) 반면, 대처능력이 위험행동의 인과적인 영향요인(예측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Han, 2004; Lee & Bell, 2004).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위험행동과의 관련성에서 주로 유의미한 관계로 보고되나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가족 요인, 또래 요인, 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가족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요인 중의 하나로 편부모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의 가족의 구조적인 환경 뿐 아니라 가정폭력, 부모의 문

제성 음주, 부부 갈등, 부모 우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족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Oh & Moon, 2006; Soh et al., 2001). 가족 내 의사소통, 양육태도, 친밀감, 지지, 감시 및 통제 등을 포함하는 가족 기능 또한 위험행동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지지되어 왔다(Han, 2004; Jessor, 1991).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적 특성 중의 하나인 또래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교우관계에서의 집단동조압력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문화, 부정적인 또래관계 및 행동, 또래 지향성/동조성 등이 위험행동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었다(Han, 2004; Irwin & Millstein, 1986; Jessor, 1991; Lee & Bell, 2004; Yoon & Nam, 2007). 즉 또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또래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모방과 동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개인 및 상호작용 특성이 아닌 대상자에게 노출된 또래 위험행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신적·정서적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유해시설이나 유해매체와 유해물품을 포함하며 그것의 유해성으로 선정성, 폭력성, 소비지향성, 이기적인 쾌락주의 등을 들 수 있다(Lee & Kim, 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2006년부터 매년 10,0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출, 비행, 학교부적응의 위기청소년 집단이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해매체, 약물, 업소 등의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유해환경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위험행동의 장소, 의사소통, 호기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위험행동을 촉진할 수 있고 현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로 청소년 위험행동의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문제행동 개념을 사용하여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가 드물고 관련요인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도 주로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선별된 특수집단이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학교 현장의 중학생에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학교보건이나 지역 내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임상영역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행동이 시작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임상적 관점에서 조절 가능한 구체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위험행동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지도방안이나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 및 위험행동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과 위험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여러 이론적 모형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중학생의 일반적,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큰 편차가 없고 성별 특성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남녀 중학교의 학생 544명이었다. 위험행동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성별, 학교형태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서울 지역 남녀 중학교 2, 3학년과 경기 지역 남녀 중학교 2, 3학년 중 각 2개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국문해석이 가능하

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고,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크기(수)는 모집단의 크기와 표집비율, power analysis software에 의한 산출에 근거한다. 근접 모집단인 서울·경기도 내 중학생 수는 약 80만 명으로 조사연구에서 통계학적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모집단의 5% 표집비율을 넘지 않고, G*Power 3.1.2 software에 의해 유의수준 5%, 검정력 90% 수준에서 가산자료(count data)의 기준 모델인 poisson regression (distribution: binomial)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515명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서 9월 9일로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수령·보관을 위한 예비조사는 자료수집 1개월 전 남녀 중학생 각각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두와 서면을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담임선생님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에는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 점과 철저한 익명성,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자료수집 시기는 기말시험 후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연구도구

1) 청소년 위험행동

청소년 위험행동은 Han (2004)이 Gullone 등(2000)의 위험행동 측정도구를 기초로 개발하여 국내에서 검증한 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부요인으로서 위험행동유형은 반항성(7문항), 반사회성(6문항), 모험성(5문항) 위험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항성 위험행동에는 음주, 흡연, 오토바이, 외박, 배회, 반사회성 위험행동에는 성희롱, 약물 남용, 성병이나 임신, 폭력적인 싸움, 모험성 위험행동에는 음란동영상, 무단결석, 커닝, 훔침, 거짓말 항목이 포함된다. 총 18문항으로 빈도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4점 척도(0=없음, 1=1회, 2=2~4회, 2=5 이상)로 재구성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Han (2004)의 연구에서 하위유형 반항성 .87, 반사회성 .72, 모험성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89, 하위유형은 반항성 .84, 반사회성 .89, 모험성 .67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Coopersmith (198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Yu (2000)가 4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10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Yu (2000)의 연구에서 .80,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3) 스트레스 대처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측정은 Lazarus와 Folkman (1984)이 개발하고 Kim (2002)이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문제지향적(6문항), 정서완화적(8문항), 소망적 사고(7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6문항) 대처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그렇다, 3=매우 그렇다) 총 0~81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Kim (2002)의 연구에서 .83,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4) 가족위험요인

Oh와 Moon (2006)이 가족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자녀구타, 부부간 폭력, 부모의 문제성 음주, 부부 갈등, 부모의 우울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점 척도로(0=전혀 아니다, 1=약간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매우 그렇다) 총 0~15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위험요인이 높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79였다.

5)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Portner와 Lavee (1985)가 개발하고 Min (1991)이 번안한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가족결속력(10문항)과 가족적응력(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결속력은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고, 가족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총 20문항, 5점 척도로(0=전혀, 1=거의, 2=때때로, 3=자주, 4=항상) 총 0~8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Min (1991)의 연구에서 전체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0, 가족결속력 .86, 가족적응력 .79였다.

6) 또래 위험행동

또래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까운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Han (2004)의 위험행동 측정도구에 포함된 위험행동목록과 예비조사에서 나온 피드백에 준하여 음주, 키스, 흡연, 오토바이타기, 무단외박, 불법약물복용, 성병이나 임신, 잦은 싸움, 훔치기, 음란비디오, 수업 빼먹기, 커닝, 잦은 거짓말 등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총 0~18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7) 유해환경요인

Lee와 Kim (1999)이 기존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보완한 척도로 유해시설, 유해물품, 유해매체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의 피드백 내용을 추가로 고려하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항목의 예: 전자오락실, 당구장, 커피숍이나 카페, 만화가게, 소주방, 비디오방 / 술, 담배 / 성인방송, 성인잡지, 성인만화, 음란동영상, 인터넷음란사이트, 음란PC게임 등) 총 0~19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해환경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과 Stata 1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일반적 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

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세 집단 이상의 다중비교는 Tukey's method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GLM) 대신 가산모형(count model)을 사용하였다. 가산모형은 포아송 분포로서 정규분포하지 않고 편향되어 있을 경우 사용되며, 적합한 가산모형을 선정하는 과정은 기본모델인 poisson regression에서 평균보다 분산이 큰 과분산(overdispersion)의 경우에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이 보다 적합하며, 과도한 zero ('0')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또는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이 보다 적합하다(Cameron & Trivedi, 1998). 본 연구의 자료는 Figure 1-A와 같이 심하게 편향되어 있고 정규분포하지 않으며 '0'의 관찰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Figure 1-B와 같이 과분산의 상태로 poisson regression보다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이 보다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0'의 관측치를 다수 포함하므로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가산모형을 선정하는 이러한 조건들은 통계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α -test에서 α 값이 0이 아닌 경우 과분산의 상태로, Vuong test의 유의수준이 .05보다 작을 때 과도한 '0'를 포함하는 상태로 판단한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위험행동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544명 중 서울 지역 중학생은 257명(47.2%), 경기 지역 중학생은 287명(52.8%)이었고, 학년 구분은 2학년이 276명(50.7%), 3학년이 268명(49.3%)으로 비슷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281명(51.7%), 여학생이 263명(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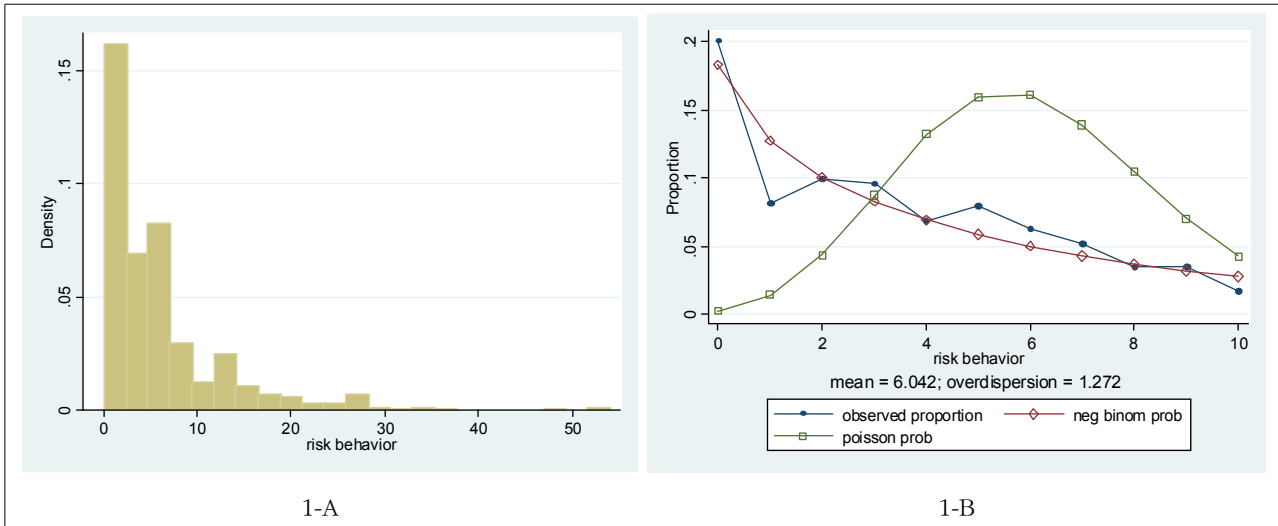


Figure 1.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of dependent variable.

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고, 연령 분포는 만 12~16세로 평균 14.5세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3명(11.8%), '중'인 경우는 가장 많은 426명(80.1%)이 응답하였으며 '하'의 경우는 43명(8.1%)이었다. 학업성취도는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5명(17.7%), '중'은 276명(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라고 답한 경우는 167명(31.0%)이었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472명(87.7%), 한쪽 부모나 부모 외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66명(12.3%)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 사별, 직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별거 등의 이유를 모두 포함한다.

2)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특성

중학생의 개인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사회환경적 특성인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의 정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자아존중감은 33~95점으로 평균 64.9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0~81점으로 평균 43.2점이었다. 하부요인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대처방식은 소망적 사고로 문항수로 나눈 표준화된 값이 가장 높아(1.8점)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이었다. 대상자의 사회환경적 특성으로서 가족위험요인은 범위 0~15점으로 평균 1.1점이었고,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의 갈등이었다. 가족기능의 총점은 0~78점으로 평균은 37.7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으로 가족결속력은 평균은 21.1점이었고 가족적응력은 평균 16.5점이었다. 또래 위험

행동은 0~18점으로 평균 5.3점이었고, 5가지 이상의 또래 위험행동에 노출된 경우는 268명(49.9%)이었다. 유해환경요인은 0~19점으로 평균은 7.4점으로 나타났다.

3) 위험행동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전체와 남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1). 전체 위험행동 총점은 0~54점의 범위로 평균은 6.0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험성 위험행동이 평균 3.4점으로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험행동 항목별 평균점을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온 위험행동은 평균 1.2점으로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평균 6.8점, 여학생이 5.3점보다 높았고, 위험행동순위에서는 남학생은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 여학생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항목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인 위험행위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의 빈도가 높고 반사회성 위험행동의 빈도는 낮았다.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은 전체 168명(30.9%)으로 나타났고 남녀 각각 86명(30.6%), 82명(31.2%)이었다. 대표적인 위험행동인 흡연 경험률은 전체 103명(18.9%), 남학생 64명(22.8%), 여학생 39명(14.8%)으로 남학생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음란 동영상을 본 경험은 전체 279명(51.3%), 남학생 197명(70.1%), 여학생 82명

Table 1. Individual,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Risk-taking Behavior of Subjects

(N=544)

Variable	Range	M±SD
Self-esteem	33~95	64.9±10.36
Stress coping ability	0~81	43.2±9.39
Family risk factors	0~15	1.1±1.98
Family functioning	0~78	37.7±14.70
Family cohesion	0~40	21.1±8.37
Family adaptability	0~40	16.5±7.30
Peer's risk-taking behavior	0~18	5.3±4.39
Harmful environment	0~19	7.4±5.03
Risk-taking behavior	0~54	6.0±7.41
Rebellious behavior	0~21	2.2±3.77
Antisocial behavior	0~18	0.4±1.61
Thrill-seeking behavior	0~15	3.4±3.29
Risk-taking behavior items checked as high		
1. 'Watching lewd moving pictures'	0~3	1.2±1.30
2. 'Getting pocket money using lies'	0~3	0.8±1.10
3. 'Losing lessen intentionally'	0~3	0.8±1.12

(31.2%)으로 남학생의 상당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 대상자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중학생의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점수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t-test와 ANOVA를 통한 차이검정 결과, 지역,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에 따라 위험행동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단,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p 값이 .05에 가깝게 나타났고($F=2.93, p=.054$), Tukey 다중비교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 '상'인 그룹과 '중'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오히려 위험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위험행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위험행동점수가 높았고($t=2.30, p=.022$),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적게 나타났다($t=-2.16, p=.034$).

2) 대상자의 위험행동과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중학생의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위험행동은 가족위험요인($r=.16, p<.001$), 또래 위험행동($r=.49, p<.001$), 유해환경요인($r=.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능력($r=-.10, p=.022$)과 가족기능($r=-.18,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족위험요인이 높고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클수록 위험행동 발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행동의 하부요인인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과 연관성을 갖는 변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반항성 위험행동의 유의한 관련요인은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반사회성 위험행동은 자아존중감과 가족적응력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모험성 위험행동은 모든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변인들과 연관성을 보였다.

3. 대상자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

Table 2. Differences in Risk-taking Behavior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Risk-taking behavior		t or F	p	Post hoc, (Tukey)
			M	±SD			
Region	Seoul	257 (47.2)	5.8	±7.84	-0.67	.503	
	Gyeonggi	287 (52.8)	6.2	±7.01			
Grades	Second	276 (50.7)	6.4	±7.55	1.13	.260	
	Third	268 (49.3)	5.7	±7.25			
Gender	Male	281 (51.7)	6.8	±7.74	2.30	.022	
	Female	263 (48.3)	5.3	±6.98			
Living with parents or not	Yes	472 (87.7)	5.6	±6.78	-2.16	.034	
	No	66 (12.3)	8.4	±7.24			
Socio-economic status	Good ^a	63 (11.8)	8.1	±11.14	2.93	.054	a > b
	Fair ^b	426 (80.1)	5.7	±6.72			
	Poor ^c	43 (8.1)	6.3	±5.38			
School records	Good	95 (17.7)	5.7	±9.64	2.26	.106	
	Fair	276 (51.3)	5.5	±6.05			
	Poor	167 (31.0)	6.9	±7.56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544)

Variables	1.	2.	3.	4.	4-①	4-②	5.	6.	7.	7-①	7-②	7-③
1. Self-esteem	1.00											
2. Stress coping ability	.07	1.00										
3. Family risk factors	-.23**	.06	1.00									
4. Family functioning	.47**	.28**	-.25**	1.00								
4-① Family cohesion	.49**	.28**	-.28**	.95**	1.00							
4-② Family adaptability	.40**	.24**	-.18**	.93**	.78**	1.00						
5. Peer risk-taking behavior	-.07	.05	.13**	-.04	-.04	-.02	1.00					
6. Harmful environments	-.01	.06	.13**	-.01	.01	-.03	.56**	1.00				
7. Risk-taking behavior	-.06	-.10*	.16**	-.18**	-.19**	-.14**	.49**	.34**	1.00			
7-① Rebellious behavior	-.03	-.03	.10*	-.12**	-.13**	-.09*	.45**	.27**	.89**	1.00		
7-② Antisocial behavior	.03	-.12**	.16**	-.12**	-.14**	-.07	.27**	.18**	.68**	.51**	1.00	
7-③ Thrill-seeking behavior	-.12**	-.12**	.15**	-.19**	-.20**	-.16**	.42**	.35**	.83**	.55**	.39**	1.00

* $p < .05$; ** $p < .01$.

해,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위험행동의 개입 여부와 증가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살펴보았다(Table 4). 앞서 상관분석에서 총 위험행동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자아존중감($\beta = .05, p = .053$)이 위험행동의 개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으로는 가족기능(β

$= -.01, p = .038$)과 또래위험행동($\beta = .09, 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며, 가족기능이 좋지 않고 또래위험행동에 대한 노출이 많을 때 위험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험행동과 상관성을 보인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Risk-taking Behavior

(N=544)

Variable	Categories	β	SE	<i>p</i>
Risk-taking behavior	Self-esteem	.00	.00	.603
	Stress coping ability	-.01	.00	.130
	Family risk factors	.02	.02	.244
	Family functioning	-.01	.00	.038
	Peer's risk-taking behavior	.09	.01	<.001
	Harmful environments	.01	.01	.573
Inflate	Self-esteem	.05	.03	.053
	Stress coping ability	-.00	.03	.919
	Family risk factors	.01	.20	.951
	Family functioning	-.01	.02	.743
	Peer's risk-taking behavior	-.44	.33	.187
	Harmful environments	-.13	.08	.106

$\alpha = .62 (\neq 0)$, Vuong test $p < .001$

험요인, 유해환경요인은 인과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을 파악하고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정도와 양상 및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544명의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0~54점의 가능 범위에서 평균 6.0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평균 6.8점, 여학생은 5.3점으로 남학생의 위험행동이 보다 높았다.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은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 중 모험 또는 스틸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수용적인 모험성 위험행동이 가장 높았다. 위험행동별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전체 집단에서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체 51.3%, 남 70.1%, 여 31.2%) 항목별 평균이 1.2로서 수치상으로는 모든 대상자가 적어도 1회 이상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과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점과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같이 여과 없이 쉽게 인터넷 동영상 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할 수 있는 점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연간 음주경험률은 전체 30.9%, 남 30.6%, 여 31.2%였고 흡연경험률은 전체 18.9%, 남 22.8%, 여 14.8%로 나타났다. 부산시 약 6,000여명의 중고등학교

을 대상으로 한 Bae와 Choi (2009)의 물질남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술, 담배, 기타약물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학생의 물질사용 비율은 16.3%였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물질사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서울시 중학생 1,480명을 대상으로 한 Sohn (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음란물 접촉경험률 52.6%, 월간 음주율 18.7%, 흡연경험률 6.4%였고 남학생의 위험행동 빈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중학생 시기에는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모험성 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위험행동의 정도와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선 중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반 중학생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모험성 행동이 반항성 또는 반사회성 위험행동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녀 학생의 위험행동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흡연, 음주에 관한 예방적 중재가 요구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음란동영상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학생 시기에 올바른 성지식과 성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필요 하겠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부모와 의 동거 여부였고, 지역,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취 도에 따른 위험행동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거나 상반된 결과이다. 여학생에 비해 남

학생의 위험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Yoon과 Nam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은 Soh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가족형태에 있어 가정불화(별거나 이혼), 직장,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구성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분리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분리가족 내 자녀의 높은 위험행동 발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며 이에 대한 관심과 중재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위험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Soh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상적 중재에 의해 조절 가능한 변인들이다. 우선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가족결속력, 가족적응력),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 모두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족위험요인과 또래 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은 위험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3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아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은 위험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2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낮아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은 총 위험행동,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위험행동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p < .01$) 관련요인으로 규명되었는데, 이는 또래의 위험행동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고(Lee & Bell, 2004; Jessor, 1991) 유해환경에 접촉할수록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Lee & Kim, 1999)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서 또래요인과 유해환경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이나 행동과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용률보다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 함께 위험행동에 동참하거나 유해환경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에서 자아존중감은 모험성 위험행동 외에 총 위험행동, 반항성, 반사회성 위험행동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던 변인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위험행동과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위험행동과 문제행동의 개념상의 차이, 다양한 위험행동 범주를 포함하는 측정도구상의 문제, 중학생의 발달특성으로 인한 복잡한 관련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소년 위험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움이나 또래와의 어울림, 스트레스 해소 등의 지각된 이득을 취하고 조절해가는 행동으로서 보다 대담하고 거침없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래행동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쾌락 추구 및 스트레스 해소의 방안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행동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산모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험행동에 개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계선상으로 유일하게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위험행동 개입 여부에 관여하지만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오히려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만($\beta = .05$) 위험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변인으로서, 앞서 상관분석에서도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복잡한 관련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가산모형에 의한 이러한 결과는 상관분석이나 일반선형모형 회귀분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변인과의 복잡한 관련성을 다소 규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위험행동 개입은 청소년기 발달특성으로서의 도전, 모험, 호기심과 대담함의 의미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위험행동이 발현되었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행동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위험행동을 증감시키는데 기여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가족기능($\beta = -.01, p = .038$)과 또래위험행동($\beta = .09, p < .001$)이 의미 있는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즉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그러한 행동을 강화 또는 억제하는 요인으로 가족과 또래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Lee와

Kwak (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와 또래 변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부모의 애착과 자율성, 감독, 그리고 또래 위험행동이 위험행동을 억제 또는 증가시키는데 유기적이며 중대하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위험행동이 증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가족적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접근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현재 위험행동은 문제행동과 혼용되거나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개념 정립과 합의를 위한 개념분석 연구와 현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위험행동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요인 연구를 제안한다. 실무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서 일반 및 보건교사들에게 분리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가족위험요인 및 가족기능 파악, 취약한 가족요인을 갖는 가족과 학생에 대한 보살핌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관리전문가들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개선에 초점을 둔 위험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미비하고 정립되지 않아 위험행동의 측정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자가보고식 설문과 담임선생님의 자료수집으로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일반 중학생 집단의 위험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인내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관련 및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위험행동 관련 요인은 성별, 부모와의 동거 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스트레스대처능력,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또래위험행동, 유해환경요인으로 나타났고, 인과적인 영향요인으로서 위험행동 개입에 기여하는 자아존중감과 위험행동을 증가 또는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가족기능과 또래위험행동이 규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긍정적인 위험행동 접근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며, 일반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행동 관련요인과 위험행동 개입 및 증가 요인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S

- Bae, J., & Choi, S. (2009). Prevalence of substance abuse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21-30.
- Cameron, A. C., & Trivedi, P. K. (1998).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persmith, S. (1981). *Self-esteem inventori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D.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31-250.
- Han, S. C. (2004). Analysis of a prediction factors of risk behavior with adolescents at a small cit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193-210.
- Han, S. C. (2006).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5), 99-116.
- Han, S. C., Kim, H. O., Sul, I. J., Im, Y. S., & Jo, A. M. (2003). *Adolescent problem behavior: Psychological approach*. Seoul: Hakjisa.
- Irwin, C. E., & Millstein, S. G. (1986). Biopsychosocial correlates of risk-taking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7*, 82-96.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Kim, S.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M. S. (2008). Risk behavior of youth perspectives for lifestyle: Focus on reckless driving. *Korean Youth Research, 15*(1), 301-325.
- Lazarus, R., & Folkman, S. (Ed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J. M., & Bell, N. (2004). Individual differences, attitudes toward risk behaviors, parents and peers as correlates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2), 55-67.

- Lee, J. M., & Kwak, Y. (2007). Clustering of parental and peer variables associated with adolescent risk behaviors and their characteristics: Using mixture mode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 899-908.
- Lee, K. S., & Kim, S. Y.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degree of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 and perceived degree of harmfu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y, 6*(1), 49-71.
- Min, H. Y. (1991). *Circumplex model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0). *Comprehensive survey on youth harmful environment in 2009*. Seoul: Author.
- Moore, S., & Gullone, E. (1996). Predicting adolescent risk behavior using a personalized cost-benefit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43-359.
-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7). *White paper for the Korean youth in 2007*. Seoul: Author.
- Oh, K. J., & Moon, K. J. (2006).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s-child relation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59-76.
- Olson, D. H., Portnet, J., & Lavee, Y. (1985). *FACES-III: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Russel, C.,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ark, H. S., & Jo, G. Y. (2010). Development of a Korean risk behavior scale for middle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229-240.
- Perkins, D. F., &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547-563.
- Sherina, M. S., Rampal, L., Loh, J. W., Chan, C. L., Teh, P. C., & Tan, P. O. (2008). Self-esteem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Klang District, Selangor. *Medical Journal of Malaya, 63*(1), 26-30.
- Soh, J. H., Jung, Y. K., Jang, G. Y., Shin, Y. K., Lee, K. H., Eun, B. L., et al. (2001). Predisposing factors of risk taking behaviors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44*, 1364-1373.
- Sohn, A. (2010). The relationship with tobacco use, alcohol consumption and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Seoul cit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1), 77-87.
- Yoon, H., & Nam, Y.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s: The mediating pathway of psycho-emotional fact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3*, 127-153.
- Yoon, H. M., Park, B. K., & Ryu, J. R. (2005). Stres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risk behaviors. *Human Ecology Research, 9*(1), 45-64.
- Yu, Y. J. (2000). *On the relation social support perception and self esteem and self disclosure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Veselska, Z., Geckova, A. M., Orosova, O., Gajdosova, B., van Dijk, J. P., & Reijneveld, S. A. (2009). Self-esteem and resilience: The connection with risky behavior among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s, 34*, 287-291.